

원주관순

○○초등학교 6학년 강○○

2020 <교과서, 어디까지 가봤니?> 역사 탐방

01

탐방 소개

- 탐방 주제
- 일정 및 장소
- 참가인원
- 탐방 목적

02

탐방 내용

- 1일차
- 2일차
- 3일차

03

탐방 후기

- 느낀점
- 활동 계획



대한민국을 위해 일제강점기 때 희생하신 독립투사들의 발자취 따라가보기

01 탐방 소개

탐방 일정 및 장소

1일차(2020년 10월 10일)

시간	장소
AM 10시	원주에서 인천으로 출발
PM 1시	할아버지 인사드리면서 점심 식사
PM 2시	서울로 출발
PM 3시	서대문 형무소 관람
PM 5시	호텔로 출발
PM 6시	호텔 주변 관광 및 저녁식사

2일차(2020년 10월 11일)

시간	장소
AM 8시	아침 식사(호텔 조식)
AM 9시 30분	안중근 의사 기념관 출발
AM 10시	안중근 의사 기념관 관람
AM 11시	백범 광장 및 남산 공원 산책
PM 1시	점심 식사
PM 3시	원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남 스타필드 구경
PM 5시	원주로 출발

3일차(2020년 10월 24일)

시간	장소
AM 10시 30분	원주에서 천안으로 출발
PM 11시 20분	점심 식사
PM 12시	아우내 장터 및 병천 순대거리 구경
PM 1시	천안 독립기념관 관람
PM 5시	코스트코 구경
PM 6시	호텔로 출발
PM 7시	저녁식사

01 탐방 소개

탐방 참여 인원



아빠, 엄마, 첫째언니, 나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절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 속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다 보면 마음 속에 진심으로 와 닿는 애국
심을 느끼기 위해서 답사를 하려 한다.

1일차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벽면에 큰 태극기가 달려있었다.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보이던 붉고 파란 것이 이 태극기였다.
큰 태극기가 달려있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애국 지사들을 특수 범죄자로 분류하여
전기과 번기도 없고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가둬 고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고 또 겨우 서있을 만큼 좁았다.

02 탐방 내용

1일차(2020년 10월 10일)



등근 모양의 조형물은 추모 공간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항일 독립 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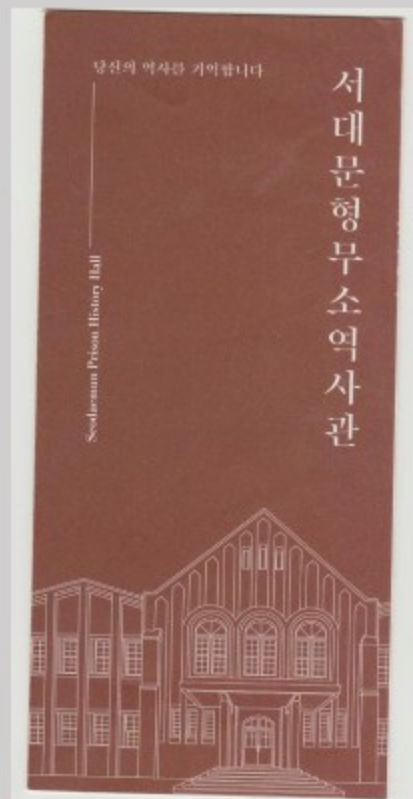
조형물에는 독립 운동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간수 사무소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서대문 형무소의 운영 조직과 인력 배치 등 감옥 운영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02 탐방 내용

1일차(2020년 10월 10일)



2020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활동을 하며 알아보았다.



02 탐방 내용

1일차(2020년 10월 10일)

피제이 호텔



서대문 형무소를 관람하고나서
호텔에 도착하였다.

침대도 많고 화장실도 두 개나 있어서
굉장히 편했고 또 좋았다.

세운 상가는 1층에는 볼 게 많이 없었는데
2층에 올라가니 전구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중에 내려가는 곳을 못 찾아서
다시 원주로 돌아오지 못할 뻔했다.



호텔 주변에서 사온 음식을 모아보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모였다.

순대와 허파, 닭발을 살 때 내가 많이 넣어
달라고 하니 정말로 많이 넣어 주셨다.

2일차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들어가니
바로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 관람을 시작해서
관람을 마친 후 왼쪽으로 나왔다.



‘옳은 일을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거든 구해줄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잡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대한국민 안중근

02 탐방 내용

2일차(2020년 10월 11일)

안중근 의사를 향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있었다.
재미있고 편지도 있었고 감동적인 편지도 있었다.
나는 ‘안중근 의사님!
독립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안중근 의사가 손바닥 도장을 찍은 것을 보면 약지가 짧은 걸 알 수 있다.
이것은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맹세하며 약지를 끊어
약지에서 흐르는 피로 태극기 위에 ‘대한독립’을 적었기 때문이다.
손가락을 끊을 때를 생각하니 생각만해도 아프다.

02 탐방 내용

2일차(2020년 10월 11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퀴즈를 다 맞추어서 졸업장을 받았다.
지금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안중근의 어렸을 적 이름은 안응칠이다.” 의 O/X
퀴즈는 생각이 난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옆에 있는 벽에
안중근 의사가 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다.
그중 기념관 안에서 본 말들도 보였다.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 :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힌다.
 “인내” : 참고 견딘다.



02 탐방 내용

2일차(2020년 10월 11일)

백범 광장



집에 가기 전에 공원에 들렀다 가기로 했다.
공원에 가보니 드라마 촬영지와
우리가 역사 인물 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있었다.

공원에서는 남산타워가 아주 잘 보였다.

김구 선생님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지
못한 게 아쉽다.



3일차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진천 손맛 한식 뷔페



천안으로 가는 도중,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들렸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를 바른 후, 입장하여 음식을 담았다.
다른 음식도 다 맛있었으나 짜장면이 정말 맛있었다.

천안 아우내장터와 병천 순대거리



독립 기념관에 가기 전 아우내 장터에 들렀다.
이곳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이전에는 사람이 많이 다녔을테지만,
지금은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쓸쓸한 거리가 되었다.



병천 순대거리에서 한 순대집이 맛있다고 하길래
찾아갔지만 줄이 너무 길어서 결국 먹지 못하였다.
먹고 싶었는데 아쉽다.

천안 독립기념관



독립 기념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손등에 스티커를 붙여야 관람할 수 있었다. 우리 입장 순서에 방명록을 쓴 후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주었다. 코로나 19때문에 불안했는데 이렇게 관리를 잘 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독립 기념관 안에 들어가니 통일기념 청소년 농구대회를 하고 있었다. 이 대회는 우리가 관람을 하고 나을 때까지도 하고있었다.ㅋㅋ

02 탐방 내용

3일차(2020년 10월 24일)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길에 태극기 받이 펼쳐져 있었다.
독립기념관 안쪽에는 동상이 세워져있었다.

태극기가 끝없이 펼쳐진 것을 보니 애국심이 차올랐다.



02 탐방 내용

3일차(2020년 10월 24일)



독립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니 퀴즈를 풀 수 있게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퀴즈를 풀면서 내가 몰랐던 독도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 사람들은 왜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02 탐방 내용

3일차(2020년 10월 24일)



독도 부스에서 독도 퀴즈를 풀어보았다.
퀴즈를 풀고 선물로 받은 독도 만들기 체험도 해보았다.

02 탐방 내용

3일차(2020년 10월 24일)



예전에 타고 다니던 열차가 전시되어 있었다.
직접 올라가보니 그 시절에 내가 살아서 기차를 탄 기분이었다.



전시관을 둘러보던 중 일본 순사가 입던 옷을 입힌 마네킹이 있길래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자세를 취해보았다.
실제로 때린 것도 아닌데 뭔가 통쾌했다.

02 탐방 내용

3일차(2020년 10월 24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가
강제로 일을 하게 했던 모습을 재현한 모형이다.
이런 일이 애초에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받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강제로 노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일을 해야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나도 모형 앞에서 만세를 해보았다.
원래의 나라를 찾기 위해 만세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웠다.

02 탐방 내용

3일차(2020년 10월 24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재현해놓은 곳에 들어가 보았다.
곳곳에서 나오는 영상들과 총소리 등이
현장감을 더 살려주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정말 몇 번이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윤봉길 도시락 폭탄 사건을
재현한 모형이다.

그런데 사실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이 아닌
물통 모양 폭탄을 던지셨다고 한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조금 더
공부해보려고 한다.

02 탐방 내용

3일차(2020년 10월 24일)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가운데 있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다.
옆에 분들은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참모 김학규 라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사람들이 모인 모습이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 41분의 독립 운동가들을 나타냈다.
나는 김구 선생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단체사진을 보니 사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게 보였다.
이 분들이 전시된 곳을 보자마자 마음이 뭉클했었다.

02 탐방 내용

3일차(2020년 10월 24일)



손톱을 빼서 고문을 하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고문을 했다고 한다.
이 사진 말고도 상자 안에 못을 박아놓고 흔들어서 찢리게 하는 상자 고문도 있었다. 너무 잔인해서 차마 자세히 못봤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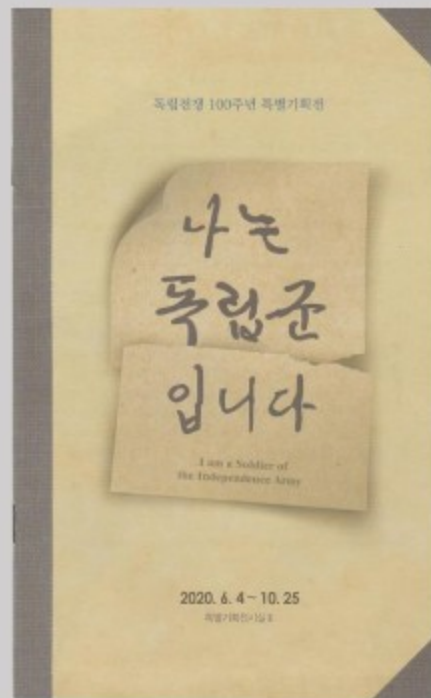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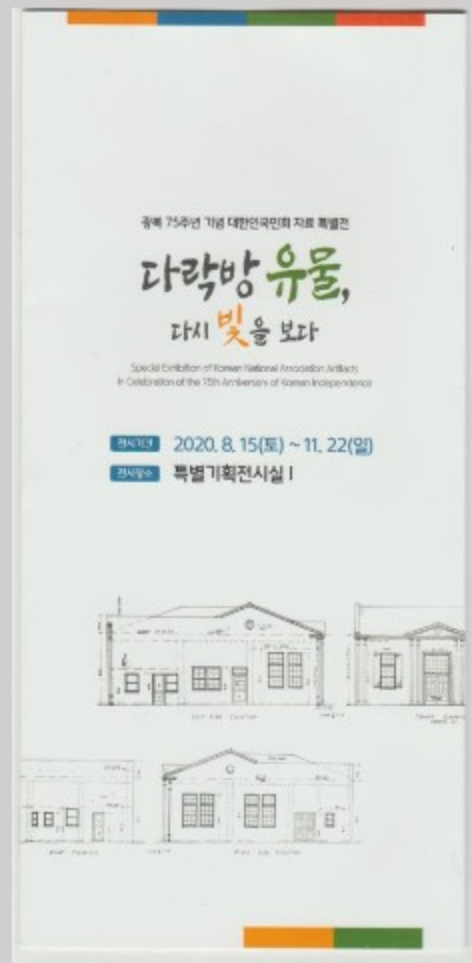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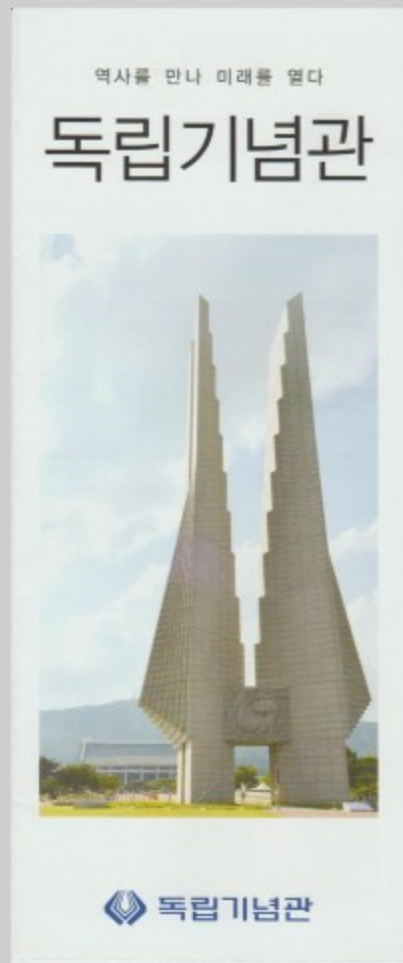
일본인들은 도망치지 못하게 사람을 묶은 뒤 고문을 했다고 한다.
고문을 버티기 힘들었을텐데 고문을 버티고 감옥 안에서도 독립운동을 한 독립 운동가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독립투사들에게 우리도 독립의지를 보여주도록
나의 이름을 흘려보냈다.
이름을 보낸 만큼 떳떳하게 애국심을 가질 것이다.



02 탐방 내용

3일차(2020년 10월 24일)



03 탐방후기

탐방 후 느낀점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한 장소를 전부 가지 못하였던게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계획표는 이곳 저곳 관람을 하려 하였는데 시간가는 줄 모르고 관람하다 보니 다른 박물관은 가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다음 탐방 계획을 할 때는 이번 탐방을 경험삼아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곳을 중요시 하여 계획을 짜 보려고 한다.

서대문 형무소, 안중근 의사 기념관, 독립기념관 등을 관람하면서 독립 운동가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몇 번이고 생각한다.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독립 운동가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렌타이 데이나 화이트 데이, 할로윈 데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보다,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등을 더 기억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잘못이 얼마나 크고 잔인한지 일본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겪지도 않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과서, 어디까지 가봤니?>를 통해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더 깊이 알게되어 좋았다.

03 탐방후기

앞으로의 활동 계획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모르는 친구들에게 독립 운동가들이 한 노력과 그들이 겪은 고통을 알리려 노력하겠다.

내가 관람한 곳을 가보지 못한 친구에게 추천을 해줄 것이다.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책이나 활동을 통해 더 배웠으면 좋겠다.

역사와 관련된 영화를 보며 내가 관람하며 배웠던 내용을 떠올릴 것이다.

감사합니다.